

태풍 '카눈' 9일 동해안 영향... "사고 유의"

6일 日 규슈 상륙...10일 동해상 진입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이번 주 일본 규슈를 통과한 뒤 동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상청 수치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약 190km 해상을 지나 동해상으로 북진 중이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5m, 강풍반경은 340km이며 강도는 '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눈은 이날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진입한 후 7

일 북진을 시작해 9일 새벽~아침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0일 낮에는 경상해안에 진입하고, 11일 새벽에는 강원북부동해안을 지나 동해북부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이다.

9일 밤~10일 밤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 카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새벽~11일 오전에는 대구와 경북, 충북이, 10일 아침~11일 낮에는 강원도와 경기동부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을 중심

으로 8~10일 비가 내리겠다. 9~1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 소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제주도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서해안과 남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피서철 해안가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아울러 8~11일 사이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전해상, 제주도해상, 대화도, 연해주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태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폭염과 열대야는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강화될 전망이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폭염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화순경찰, 다중운집장소 특별치안활동 나서

화순경찰서(서장 박웅)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른바 '문지마 칼부림'의 모방 범죄를 막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자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에 나섰다.

화순=박순철기자



순천경찰, 순천교통 승무사원 감사장 전달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지난 3일 순천교통을 방문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한 순천교통 승무사원(이홍재, 57세, 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담양소방, 전자동차 화재대응 훈련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전자동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2일 전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맨홀 등 질식사고 현장대응 특별훈련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최근 맨홀 등 질식사고 대비 119 구조대원 특별구조 훈련을 강진경찰서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소방, 전자동차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 임회119안전센터는 지난 4일 최근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고 있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화재에 대비한 자체 팀 단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해경, 폭염 속 명사십리 해수욕장 현장점검 나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5일 본격적인 여름 극성수기 피서철이 다가와 관내 관광객 급증 예상, 완도군 소재 명사십리 해수욕장 점검에 나섰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작년 지방공기업 빚 60조 재돌파...재무건전성 '빨간불'

행안부, 411곳 2022년 결산 결과...자산·자본 동반 ↑ 부채 1년새 5조 늘어, 6년來 최다치...부채비율 36% 중점관리기관 29→27곳, 부채비율 112.1% 더 악화

지방공기업의 빚이 1년 사이 5조원 늘어나면서 6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가 6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수는 소폭 줄었지만 부채 비율은 더 나빠져 재무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411곳(직영기업 252곳, 지방공사 70곳, 공단 89곳)에 대한 2022년 결산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몸집만 커지고 허약 체질 여전...재무건전성 '비상'

지방공기업 411곳의 자산은 231조7000억원, 자본은 170조4000억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8조 4000억원(3.8%), 3조4000억원(2.0%) 늘었다.

부채는 6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원 증가했다.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부채가 6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부채 규모는 2013년 7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후 2014년 73조6000억원, 2015년 72조2000억원, 2016년 68조1000억원, 2017년 5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후 2018년(52조5461억원) 증가 전환했다가 2019년(52조4800억원) 소폭 줄었지만 2020년(54조3751억원)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뒤 2021년(56조3000억원)까지 50조원대를 유지했다.

부채 비율도 36.0%로 전년보다 2.2%포인트(p) 높아졌다.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부채 비율은 2011년 74.7%에서 2012년 77.1%로 2.4%포인트 뛰었지만 2013년(73.7%)에 하락 전환한 뒤 2014년 70.7%→2015년 65.2%→2016년 57.9%→2017년 41.6%→2018년 37.3%→2019년 34.4%로 7년 내리 감소했다. 2020년(34.9%)에 반짝 증가했다가 2021년(33.8%)에 다시 낮아진

바 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총 27곳으로 전년의 29곳보다 2곳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들의 부채 비율은 112.1%로 전년(103.1%)보다는 9.0%포인트 올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3년 157.3%에서 2014년 148.3%, 2015년 136.9%, 2016년 116.6%로 매년 낮아져 2017년(99.0%)에는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고, 2018년(97.8%)과 2019년(99.6%)까지 100% 미만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2020년(106.3%)에 이어 3년 연속 100%를 넘기게 됐다.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과 도시철도 적자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당기순손실은 6181억원에서 4978억원으로 1203억원(19.5%) 감소했다.

◇정부 "연관성 낮은 자산 정비 통한 부채 집중 관리"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 252곳의 전체 부채는 6조 6000억원으로 전년(7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부채 비율은 5.7%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1조4624억원으로 전년(4625억원)보다 9.999억원 증가했다.

직영기업 중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부채가 각각 8000억원, 5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상수도는 1000억원 늘고 하수도는 3000억원 줄었다.

상·하수도의 당기순손실은 1조9863억원으로 경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전년의 2조199억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하수도(1조5227억→1조5383억원)가 전년 대비 1.0% 적자 폭을 키웠음

에도 상수도(4972억→4480억원)가 이보다 더 큰 9.9%로 개선된 데 따른 결과다.

운송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13억원에서 9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 2019년 13억원 흑자에서 2020년 22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적자다.

공영개발만 유일하게 52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1조5587억원)보다는 순이익이 10조3339억원(66.3%)이나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9조1000억원으로 전년(8조9000억원)보다 2.2%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3448억원으로 전년(1조6091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16.4%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 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2271억원 늘었음에도 수송비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43.6%이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 부채 증가 여파로 전년(37조3000억원)보다 12.6%(4조7000억원) 늘어난 42조원이 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으로 전년(9265억원) 대비 6.9%(641억원) 줄었다. 기초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2조7000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2억원에서 36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방공단 부채는 4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증했다. 공단은 특성상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수령·집행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당기순손의 발생 여지는 적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방만·부실 경영을 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스스로 유사·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과한 복리후생을 없애는 게 골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경찰, '살인 예고' 주말 긴급회의...전국 45개소 특공대 배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한 국제공조로 체포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에 대응하기 위한 주말 긴급회의를 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유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주재로 이날 오후 4시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차장 살인예고글 관련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이날 기준으로 전국 45개소에 경찰 특공대 128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3구역, 혜화역, 강남역, 은마아파트사거리, 잠실역 ▲부산 서면역 ▲대구 동대구역, 반월당역, 중앙로역, 대구공광 ▲인천 인천공항, 송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광주 버스터미널, 광주공광, 송정KTX역 등에 배치됐다.

한편 대검찰청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흉기 난동 사건과 온라인상 살인 예고 범죄 사건 등에 관한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다.

뉴스스